

##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 연구

고 애 란 · 이 수 경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as Related to Self-Efficacy and Sensation Seeking

Aeran Koh · Soogyong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8. 7. 7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self-efficacy, sensation seeking and delinquency on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and 2)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sensation seeking, delinquency and clothing behavior in relation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35 high school girls living in Seoul, via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one-way ANOVA and SNK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self-efficacy, sensation seeking and delinquency on each of clothing behavior variables, fashion leadership was explained by the factors such as social self-efficacy, delinquency and boredom susceptibility, and psychological clothing dependence by boredom susceptibility, social self-efficacy, and thrill and adventure, clothing exhibition by boredom susceptibility, delinquency, and general self-efficacy, social approval by boredom susceptibility, and general self-efficacy, preference for up-to-date style by delinquency, boredom susceptibility, social self-efficacy, and general self-efficacy, and appearance related delinquency by delinquency, boredom suscepti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school in general self-efficacy, thrill and adventure, experience seeking, delinquency, preference for up-to-date style, and appearance related delinquency. Location of school had the effects on experience seeking, delinquency, fashion leadership, and appearance related delinquency, and socioeconomic status on fashion leadership.

**Key words:** self-efficacy, sensation seeking, delinquency, clothing attitude, preference for up-to-date style, appearance related delinquency;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성향, 비행, 의복태도, 유행선택행동 외모관련비행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 I. 서 론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이 확립되어가는 시기로서(장병립, 1979), 성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습득하여, 그것을 훌륭히 수행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달단계(Havighurst, 1972)이다. 그러나 청소년시기에는 자아 발달 과정속에서 보통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실험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실험적 수행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통적인 사회와 문제를 일으키며 문제행동이 되기도 한다. 전통사회와 문제를 일으키는 데도 마치 일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간주되어 행해지는 실험적 수행 때문에 청소년기에 급증하게 되는 비행은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전환기에 겪게 되는 여러 심리적인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비행행동은 다양하고 새롭고 복잡한 감각과 경험을 원하며, 그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신체적이거나 사회적인 위험까지도 가까이 무릅쓰는 개인의 특질인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 tendency)와 유사하게 청소년기에 급증하여 15세에서 17세 사이에 정점을 이루며, 의복에 대한 관심 또한 12세경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18세에 최고조에 이르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의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이인자, 1984). 그러므로 의복에 대한 관심과 비행, 감각추구에 대한 높은 성향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특성으로 청소년기만의 독특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의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확신감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들이 평가한 효능감 기대에 따라 동년배 집단의 행동이나 언어 혹은 의복의 스타일의 모방정도를 결정하고 도덕성, 가치관, 사회적 행동 및 성행동을 결정한다(장휘숙, 1993)

의복은 개인의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자아개념의 다른 측면인 자기효능감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비행과 감각추구를 의복행동과 관련시킨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변화하는 자신의 신체에 민감해지며 의복이나 몸치장에도 관심이 많아지는 청소년기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감각추구, 비행이 의복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

악하여, 이들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여고생의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 비행, 의복행동의 수준을 밝히고, 둘째,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비행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셋째,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비행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비행, 의복행동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기효능감

사람들은 자기행위를 판단하고 이끌어 가는 자기자신의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Bandura, 1982). 이러한 내적 기준은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따라서 좌우된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즉,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다(Peterson 등, 1992).

자기효능감은 4가지 주요한 정보원들에 의해 형성되는데, 첫번째 수행 성취(performance accomplishments)는 자기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있는 정보원이다. 수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특정행동에서의 변화를 가능케할 뿐아니라 다른 행동에 있어서 일반화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두번째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이나, 세번째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혹은 네번째 생리적 상태(physiological states)도 수행성취 만큼 크지는 않지만,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각 개인은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설득에 의해 새로운 일이나, 과거에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게되는 동시에 정서적 흥분상태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상황에 적절한 수행을 하여 성공을 기대할 수 있고, 흥분되어 있

을 때는 효과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므로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 즉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서적 안정상태에서의 수행은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다(Bandura, 1977).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주의와 행동을 잘 방향지우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며, 어려움이 닦쳤을 때에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 한다(Latham & Locke, 1991). 자기효능감은 시도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 아니라 노력의 양과 지속 인내, 사고 패턴, 각성, 궁극적인 행동 등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77). Holahan & Holahan(1987)은 자기효능감을 높이 지각한 사람일수록 실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며, Bandura(1977)도 개인이 성공을 운이나 기회로 귀인하지 않고 능력으로 귀인할 때 자기효능감 기대가 향상되므로 내적 통제적인 사람은 외적 통제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다고 보고했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평가한 효능감 기대(efficacy expectation)에 따라 동년배 집단의 행동이나 언어 혹은 의복의 스타일의 모방정도를 결정하고 도덕성, 가치관, 사회적 행동 및 성행동을 결정한다(장휘숙, 1993).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은 또래 집단에서의 유행하는 스타일에 대한 추종과 의복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며 비행행동과도 연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2. 감각추구

감각추구 특질 이론은 자극과 각성의 최적수준에 대한 개인차가 일관적이라는 것과, 이들 차이가 설문지로 측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자극 혹은 각성의 최적수준의 개인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감각추구척도(Sensation Seeking Scale)는 다음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릴과 모험추구(Thrill and Adventure Seeking)는 실외스포츠나 속도, 위험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바람을 표현하는 요인이며, 경험추구(Experience Seeking)는 여행, 악물, 음악, 미술과 비관습적인 생활 스타일을 통해 성취된 내적 경험에 대한 폭넓은 다양성의 욕구를 표현하며, 비합리적인 권위, 동조에 대해 저항하는 요인이다.

탈억제(Disinhibition)는 난잡하게 법석을 떠는 파티와 같이 쾌락적이고 외향성이 강한 인생관, 사교적인 음주, 성적인 생활의 다양성, 도박 등을 표현하는 문장을 포함하는 쾌락의 탐닉자(swinger) 요인이며, 권태 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은 반복, 틀에 박힌 일, 예상할 수 있는 것, 우둔함, 지루한 사람에 대한 혐오와, 단조로움에 대한 성급한 반작용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사람들간에 감각추구 성향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최적각성수준으로 설명된다. 즉, 최적각성수준이 높은 사람이 즐거운 기분을 느끼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각성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극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최적각성수준과 이에 따른 감각추구는 일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기 체계가 아니라 유년시절과 청소년기 사이에 증가해서 청소년기에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한다. 감각추구는 또한 다른 형태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만족될 수 있는 대처가 가능한 동기이다(Zuckerman, 1979).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감각추구가 높은 사람들이 감각추구가 낮은 사람보다 약물 사용, 술마시기를 더 하였고, 성적경험이 더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고, 여러 분야에서 창조성과 관련된 복잡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Zuckerman 등, 1970), 독창성이 더 높으며(Lamb, 1966), 일반적인 지능과는 상관없이(Blackburn 1969), 숫자 및 공간, 형태지각 능력에서는 더 높았다(Kish & Busse, 1968). Zuckerman과 Link(1968)의 보고에 의하면 일반적인 감각추구척도가 자율성, 변화, 자기과시 욕구 점수와 정적상관이 있었고, 복종, 양육, 질서정연함, 협력 욕구 점수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의복행동 관련연구로서는 Workman과 Johnson(1993)은 유행의사선도력 및 유행혁신성과 다양성 추구 성향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유행혁신자가 유행추종자보다 감각추구성향의 하위척도 중 경험추구에서 의미 있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Kwon과 Workman(1996)은 변화에 대한 최적자극수준이 높은 사람이 유행선도력이 높다고 하였다.

## 3.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의복행동

비행이란 개념은 한 사회나 국가의 도덕, 전통, 관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측면과 법적 측면

면의 두 개의 차원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비행은 실질적인 면에서 보호되어야 할 연령에 있는 청소년이 일반적인 기대에 반하여 사회의 행위규범으로부터 이탈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김기두, 1984),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비행은 소년법원의 심리에 부칠 수 있는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허재홍, 1996). 반사회적 행동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발달적인 특질로 규정할 수 있다.

Patterson 등(1989)은 비행에 대한 두 가지 발달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 한 가지는 청소년기의 독특한 생리적, 심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시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발달 경로이다. 즉 부모의 강압적인 훈육 및 아동의 강압적인 행동문제인데, 이것은 성인기의 범죄로까지 계속 발전하는 모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의 시기적인 특징, 즉 생리적 심리적 특징에 의해 유발된 비행경로이다. 청소년기 이전부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절반은 청소년기에도 비행을 하게 되며, 또 이들 중 3/4이 성인 범죄자가 된다(Blumstein 등, 1988). 그러나 청소년기 후기부터 20대 후반까지 비행자의 많은 숫자가 비행집단에서 탈락하는데, 이렇게 탈락하는 청소년은 대체로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한 자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비행을 하더라도 그 기제는 상이할 것이다(Patterson 등, 1989).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비행원인은 청소년기의 독특한 생리적, 심리적 특징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비행학생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아개념과의 관련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나(Kaplan과 Robbins, 1983; Leung와 Drasbow, 1986; Bynner등, 1981; Stanger등, 1983) 비행과 자아개념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Leung과 Lau(1989)는 자아개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비행행동은 일반적인 자아개념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부모, 학교와의 관계와는 부적 상관을, 사회적 자아개념 및 신체적 자아개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Cole등(1989)의 연구에서도 비행집단이 정상집단 보다 인지영역, 사회성, 일반적인 자기가치영역에서는 유의적으로 점수가 낮았지만, 신체적 영역의 지각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즉, 신체적으로 그리고 운동·활동에서 자신을 유능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로서 허정아(1997)는 청소년의 이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이탈정도가 높은 집단이 심리적 의존성과 심미성이 높은 반면 정숙성은 낮았으며 유행이나 과시에 의한 구매동기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자기효능감 : Sherer 등(1982)의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 SE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척도는 한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믿음의 일반적 수준을 측정하며,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Likert형의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alpha = .80$ ,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alpha = .62$ 이었다.

감각추구 : Zuckerman(1971)이 제작한 감각추구 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 SSS)를 번역하였으며, 총 64문항중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게 적당하지 않은 탈억압에 관한 문항을 제거하고 4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원칙도는 강제선택식 응답방법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스틸과 모험추구가  $\alpha = .86$ , 경험추구가  $\alpha = .80$ , 권태민감성이  $\alpha = .69$ 이었다.

비행 : 문은영(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비행척도 48 문항 중 22문항을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래방 출입", "어른에게 대들거나 반항하기"와 같은 사소한 비행문항과 "패싸움 하기", "본드, 부탄가스 흡입"과 같은 범법에 해당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 = .89$ 이었다.

의복태도 : 유행선도력, 주의 집중성, 심리적 의존성, 사회적 승인성측면을 포함하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고애란·김양진(1996), 문선정(1994), 김윤정(1992), 안애영(1987), 변기혜(1983), 최혜선(198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에서 선택·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복태도에 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유행선도력, 심리적 의존성, 주의집중성, 사회적 승인성의 4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고 52.42%의 설명력을 나타

내었다. 여러 요인에 대해 낮은 부하량을 나타낸 5문항은 제외되었으며, 도출된 각 요인의 명칭과 내용은 <표 1>과 같다.

**유행선택행동**: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의복이나 악세사리의 착용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연구자가 실제 거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fashion count 집계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칼라 스프레이 사용, 귀져, 발찌, 몸에 꼭끼고 짧은 티셔츠, 힌합바지, 굵이 아주 높고 큰 신등 12문항을 글로 제시하여 착용 여부를 진위형으로 응답케 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 = .71$ 이었다.

**외모관련 비행**: 문은영(1993)의 비행 척도 48문항 중 외모와 관련된 5문항을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 = .81$ 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학교 유형, 학교 위치, 가정의 경제수준을 포함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상대상은 임의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서울 시내 송파구와 은평구의 4개 여자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자료수집은 1997년 10월 1일에서 12일 사이에 각 학교의 수업시간을 통해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시간은 20~30분이었다. 총 4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43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분포경향을 보면, 인문계와 실업계의 전체 비율은 49.7%와 50.3%로 비슷하며, 경제수준은 9단계로 나누어 측정된 결과, 중증이 54.6%로, 피험자가 편중되었으므로 분석시 학생수의 불균형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집단을 상(상상·중상), 중(중중), 하(중하·하하)의 3집단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빈도분포분석, 요인분석(pc model,

<표 1>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n=43)

의복태도 문항 및 요인명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b>요인 I : 유행선도력</b>				
나는 유행경향을 인식하는 내능력에 자신이 있다.	.72	.19	.18	-.05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옷 잘 입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67	.23	.08	.09
내 친구들은 자주 나에게 유행에 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	.67	.34	.08	.17
친구가 옷을 살 때 나는 때때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도움을 준다.	.64	.05	.13	.24
나는 새로 유행하는 옷이나 악세사리를 친구들 보다 빨리 산다.	.62	.30	.22	.09
<b>요인 II : 심리적 의존성</b>				
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입어 기분전환을 한다.	.08	.79	.24	.03
나는 기분을 들리기 위해서 새옷을 사기도 한다.	.24	.69	.12	.65
나는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옷을 결정한다.	.25	.59	.01	-.04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23	.49	.16	.25
<b>요인 III : 주의 집중성</b>				
나는 남의 눈에 띄는 특이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21	.11	.83	.02
나는 강렬한 색으로 배색되거나 대담한 무늬의 의복을 좋아하는 편이다.	.03	.20	.76	-.07
남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는 옷을 입고 싶다.	.31	.11	.66	.15
<b>요인 IV : 사회적 승인성</b>				
나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었을 때 그 그룹의 일원임을 더욱 느낀다.	.03	.06	-.03	.74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택한다.	.23	-.00	.02	.60
모임에 가서 내옷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안해진다.	-.24	.12	.14	.56
나는 새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을 사지 않는다.	.12	-.00	-.03	.56
고유근(Eigen value)	2.66	2.06	1.92	1.75
신뢰도(Reliability)	.78	.66	.70	.50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7.57	10.34	8.50	6.45
누적변량(%)	27.57	37.91	45.96	52.42

<표 2>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비행 간의 상관관계

(n=435)

	사회적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스틸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권태민감성
일반적 자기효능감	.343***				
스틸과 모험추구	-.182***	-.095*			
경험추구	-.134**	-.009	.634***		
권태민감성	-.046	.008	.411***	.596***	
비행	-.163***	.179***	.188***	.359***	.319***

\*p<.05    \*\*p<.01    \*\*\*p<.001

Mineigen criteria, Varimax Rotation)과 신뢰도 검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SNK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비행 및 의복행동에 대한 피험자 점수경향

전체 응답자의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비행 및 의복행동 하위변인인 유행선도력, 심리적 의존성, 주의 집중성, 사회적 승인, 유행선택 행동, 외모관련 비행의 점수경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비행은 가능한 응답범위 1~5점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2.56점,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2.95점이고, 감각추구의 하위요인인 스틸과 모험추구의 평균은 2.99점, 경험추구의 평균은 2.43점, 권태민감성의 평균은 2.59점, 비행의 평균은 1.78점으로, 이론적 평균값인 3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여고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스틸과 모험추구성향은 중간정도였고,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경험추구, 권태민감성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행정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선도력에 대한 평균 점수는 2.92점, 심리적 의존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6점으로 중간정도를 나타내며, 주의 집중성의 평균 점수는 2.88점, 사회적 승인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2.85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외모관련비행은 1.59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유행선택행동은 가능한 응답범위 1~2점에서 평균 점수가 1.53점으로 중간정도를 나타내었다.

2.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비행 간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과 감각추구성향의 하위요인 및 비행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두 하위요인, 그리고 감각추구 성향의 세 하위요인간에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스틸과 모험추구, 경험추구와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스틸과 모험추구와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을수록 각성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신체적 위협을 무릅쓰는 성향인 스틸과 모험추구를 적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비관습적이거나 비합법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경험추구를 적게 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을수록 스틸과 모험추구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감각추구성향의 세 하위요인은 비행과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비행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음의 상관이 있었으나, 일반적 자기효능감, 스틸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권태민감성과는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틸과 모험추구, 권태민감성이 높을수록 비행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 비행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및 비행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행선도력 : 사회적 자기효능감( $\beta = -.255$ ), 비행( $\beta = .229$ ), 권태민감성( $\beta = .207$ ), 이 3개 변인이 유행

<표 3> 의복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및 비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n=435)

			$\beta$	t 값	R <sup>2</sup>	F 값
의 복 태 도	유형 선도력	사회적 자기효능감	-.255	-5.905	.215	39.237***
		비행	.229	5.024		
		권태민감성	.207	4.588		
	심리적 의존성	권태민감성	.282	5.888	.181	31.836***
		사회적 자기효능감	-.217	-4.900		
		스릴과 모험추구	.116	2.378		
	주의 집중성	권태민감성	.221	4.745	.162	20.728***
		사회적 자기효능감	-.221	-4.563		
		비행	.156	3.189		
		일반적 자기효능감	.109	2.237		
	사회적 승인성	권태민감성	.168	3.593	.053	11.985***
		일반적 자기효능감	.154	3.298		
유형 선택행동		비행	.417	9.117	38.880***	
		권태민감성	.121	2.774		
		사회적 자기효능감	-.113	-2.500		
		일반적 자기효능감	.094	2.058		
외모관련 비행		비행	.722	21.429	.559	273.289***
		권태민감성	.068	2.031		

\*\*\*p<.001

선도력 변량의 2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비행의 정도와 권태민감성 성향이 높을수록 유형선도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또래집단의 수용은 청소년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신체적 매력-미모와 멋진 체력이 동년배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여학생들은 또래수용에 자신을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패션스타일의 채택을 통한 동료집단의 관심과 호감을 얻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비행자들은 동년배들 사이의 인기를 얻어 청소년기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스타일을 채택하고 타인이 혁신적인 스타일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주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권태민감성과 유형선도력의 관계는 Workman과 Johnson (1993)의 유형혁신자가 유형추종자들보다 정신적인 자극형태에서 다양성에 대해 더 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한다.

심리적 의존성: 권태민감성( $\beta=.282$ ), 사회적 자기효능감( $\beta=-.217$ ), 스릴과 모험추구의 순으로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총 변량의 1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태민감성과 스릴과 모험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다. 이는,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일을 싫어하고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 기분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은 최혜선(1981)이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안전한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심리적 측면에 의존하게 되어 의복이 주는 느낌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주의 집중성: 권태민감성( $\beta=.221$ ), 사회적 자기효능감( $\beta=-.221$ ), 비행( $\beta=.156$ ), 일반적 자기효능감( $\beta=.109$ )의 순으로 주의집중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총 변량의 16.2%가 설명되었다. 즉 권태민감성 성향과 비행정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주의 집중성이 높다. 감각추구는 자기

과시 욕구와 정적상관이 있으며, 감각추구자들은 자신의 공연의 청중으로 주로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Zuckerman과 Link(1968)의 보고는, 감각추구가 일반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눈에 띄는 색상이나 스타일의 의복, 장식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관심, 호감을 획득하려는 주의집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의 수용이 중요한 과제인데,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또래 집단에 의해 수용이 되고 있으므로 의복을 통해 따로 동료들의 주의와 관심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행자들은 학교에서 또래집단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고 배척받아 반사회적인 또래와 접촉하게 되어 비행에 이르렀으므로 자신들의 집단을 외부에 알리고 또한 동료집단으로부터 관심과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눈에 띄는 의복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주의집중성의 양의 관계는 Humphrey(1971)가 자신감이 많은 사람은 개인의 주목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집중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승인성** : 권태민감성( $\beta = .168$ ), 일반적 자기효능감( $\beta = .154$ )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2개 변인이 사회적 승인성 변량의 5.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승인성은 권태민감성,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다. 이는 감각추구자들이 내적감각에 민감하고 신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신체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신체의 성장이 자기와 비슷한 연령이나 지위에 있는 또래집단과 병행하지 못할 경우 고민을 하게 되고 자신의 외모관리와 의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여 유사한 인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므로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승인을 얻는 것이 중대한 관심사이며 또래집단 수용조건에 의복이 중요한 요인임을 청소년들은 알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주의와 행동을 잘 방향지우며,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어려움이 닦혔을 때에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Latham과 Locke, 1991)은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주의와 행동을 또래집단의 수용으로 방향지워 의복을 사회적 승인성을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생각된다.

**유행선택행동** : 비행( $\beta = .417$ ), 권태민감성( $\beta = .121$ ), 사회적 자기효능감( $\beta = -.113$ ), 일반적 자기효능감( $\beta = .094$ ) 등에 의해 26.6%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행선택행동은 비행정도, 권태민감성 성향,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높다.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유행선택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은 허정아(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을 착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대인관련 사회적 상황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현재의 유행하는 스타일의 동조에 의해 인정을 받고자하는 욕구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행선택행동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의복 또는 장식을 받아들이는 정도이므로 권태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즉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갖는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에 대한 자극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외모관련 비행** : 비행( $\beta = .749$ ), 권태민감성( $\beta = .068$ )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2개 변인이 외모관련비행의 55.9%를 예측하였다. 즉 외모관련비행은 비행의 정도가 높을수록, 권태민감성 성향이 높을수록 높다. 자신의 최적 각성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권태민감성자들은 일상의 단조롭고 틀에 박힌 학생의 차림새에 벗어나는 차림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행이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나 몸치장을 요란하게 하는 등의 외모에서의 일탈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을 볼 때 외모를 통해서 착용자의 비행성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 비행, 의복행동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 비행, 의복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NK검정을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 변인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스릴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비행, 유행선택행동 및 외모관련 비행이었다. 즉 실업계 학교의 학생들이 인문계 학교의 학생들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



<표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감각추구, 비행, 의복행동의 차이

	학 교 유 형			학 교 위 치			경 제 수 준			
	인문 n=216	실업 n=219	F 값	강남 n=217	강북 n=218	F 값	상 n=56	중 n=230	하 n=135	F 값
일반적 자기효능감	2.86	3.03	13.93***	2.99	2.91	2.84	2.87	2.98	2.99	2.52
스릴과 모험추구	3.09	2.90	7.09**	3.02	2.96	.61	3.02	3.01	2.89	.79
경험 추구	2.52	2.34	10.65**	2.49	2.37	4.67*	2.40	2.45	2.46	.34
비행	1.71	1.85	7.81**	1.86	1.71	8.60**	1.75	1.81	1.75	.71
유행선도력	2.90	2.94	.43	3.00	2.85	5.69*	3.09 <sup>a</sup>	2.89 <sup>b</sup>	2.69 <sup>c</sup>	9.73***
유행선택행동	1.51	1.43	12.88**	1.45	1.49	3.19	1.49	1.47	1.44	.99
외모관련비행	1.51	1.67	5.23*	1.67	1.50	5.59*	1.59	1.61	1.49	.74

a, b, c : SNK에 의한 사후검정 결과로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 집단을 의미함. \*p<.05 \*\*\*p<.01 \*\*\*p<.001

고, 비행, 외모관련비행을 더 많이 하며, 스릴과 모험 추구, 경험추구성향이 더 낮고, 유행선택행동을 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실무적인 과목의 실습을 통하여 수행에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인문계 학교의 학생들보다 자신의 행동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 높고, 사회 진출에 대비하여 사회적응을 돕도록 출석여부가 인문계에 비해 덜 엄격하게 관리되며 많은 개인적 시간을 갖게 하는 등 규율이 인문계보다 덜 엄하고 규제 사항들이 더 적고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계 학생들은 비행에 접근할 여지가 더 많고, 현재 동년배 집단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선택하기 보다는,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차림새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경험추구와 비행, 유행선도력, 외모관련 비행이었다. 즉 강남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이 강북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보다 경험추구성향과 비행정도가 높고, 유행선도력이 높으며, 외모관련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유행선도력이었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유행주기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인식·채택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한달용돈, 월 평균 의복비 지출이 많을수록 유행선도력이 높게 나타난 김경희·김미숙(199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성향 및 비행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와 이들 변인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스릴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및 비행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스릴과 모험추구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비행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감각추구 하위 요인과 비행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유행선도력에는 비행과 권태민감성은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음의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의존성에는 권태민감성, 스릴과 모험추구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음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주의 집중성에는 권태민감성, 비행,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음의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승인성에 영향을 준 변인들은 권태민감성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었다. 유행선택행동에는 비행과 권태민감성,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음의 영향을,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외모관련비행에는 비행과 권태민감성이 유의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일반

적 자기효능감, 스릴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비행, 유행선택행동, 외모관련 비행이었으며, 학교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경험추구, 비행, 유행선도력, 외모관련비행이었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유행선도력이었다.

본 연구는 발달과정 중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복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제껏 의류학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자기효능감을 연구변인으로 다루었으며, 본연구의 결과에서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의 의복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서울시내의 4개 여자 고등학교 1학년을 임의추출 방법에 의해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감각추구척도가 우리나라의 여건에 충실한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고, 청소년에게 알맞은 척도의 개발이 요구되며, 비행척도가 자기보고식이었기 때문에 비행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비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이 척도와 사용하여 측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 감각추구성향, 비행 변화의 맥락에서 의복행동의 변화를 종단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청소년기의 특성 중 비행과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자아중심성과 자의식과의 관련 속에서 감각추구등기구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애란·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667-681.
- 김기두(1984). 한국 청소년 범죄 연구. 서울: 박영사
- 김경희·김미숙(1997). 유행선도력에 따른 여고생의 구매전 의사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3), 487-501.
- 김윤경(1992). 남자대학생의 유행선도력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선정(1994). 연예인의 유행스타일 선호도에 따른 유행선도력 및 의복태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은영(1993). 포래의 수용이 청소년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기혜(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애영(1987). 청소년기 여고생의 의복행동 및 흥미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병림(1979). 청년심리: 범문사.
- 장휘숙(1993). 청년심리학: 도서출판 장승. 최혜선(1981).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전감-불안감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아(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재홍(1996). 비행유형에 따른 구조적 집단상당의 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ndura, A. (1986). Development of a colleg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 Blackburn, R. (1969).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psycho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571-574.
- Blumstein, A., Cohen, J., & Farrington, D.(1988). Criminal career research: Its value for criminology. *Criminology*, 26, 1-35.
- Bynner, J.M., O'Malley, P.M., & Bachman, J.G. (1981). Self-esteem and delinquent revisite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407-447.
- Cole, P.G., Chan, L.K., & Lytton, L. (1989) Perceived competence of juvenile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3(3), 17-26.
- Havighurst, R.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Y.: McKay.
- Holahan, C.K. & Holahan, C.J. (1987).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42, 65-68.
- Humphrey, C., Klassen, M., & Creemore, A. M.(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246-250.
- Kaplan, H.B., & Robbins, C. (1983). Testing a general theory of deviant behavior in longitudinal perspe-

- ctive. In Van Dusen, K.T., and ednick, S.A.(eds.), *Prospective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Kluwer-Nijhoff, Boston.
- Kish, G.B., & Busse, W. (1968). Correlates of stimulus seeking: Age, education, intelligence and aptitud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633-637
- Kwon, Y., & Workman, J.E.(1996). Relationship of optimum stimulation level to fashion behavio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4), 249-256.
- Lamb, C.W. (1966). Forms of need for variety: Differential expression following arousal and boredom.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
- Latham, G.P., & Locke, E.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12-247.
- Leung, K., and Darsgow, F.(1986).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linquent behavior in three ethnic groups: An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151-167.
- Leung, K., and Lau, S. (1989). Effect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disapproval of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345-359.
- Patterson, G.R., DeBaryshe, B.D.,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eterson, C. & Stunkard, A.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1, 111-117.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at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tanger, S.F., Chassin, L., & Young, R.D. (1983). Determinants of self-esteem among labeled adolescen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3-10.
- Workman, J.E., & Johnson Kim K.P. (1993). Fashion opinion leadership, fashion innovativeness, and need for variety. *Clothing & Textkles Research Journal*, 11(3), 60-64.
- Zuckerman, M. (1971). Dimensions of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 45-52.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Zuckermann, M. Neary, R.S., & Brustman, B.A. (1970). Sensation-seeking scale correlates in experience (smoking, drugs, alchochol, "hallucinations" and sex) and preference for complexity (designs) Proceedings of the 7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17-318.
- Zuckermann, M., & Link, K.(1968). Construct validity for the Sensations 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420-426.